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협약의 정치

장흥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역사적 대타협으로 명명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2015. 9. 15)가 이루어진 지 넉 달이 지났다. 그러나 대타협의 가시적 성과보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지침(안)’ 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대타협 자체가 파국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9·15 사회협약에서 비롯하는 노동개혁은 파국으로 귀결될 것인가?

한국이 ‘사회적 협의’의 정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낮은 노조 조직률,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과 분권화된 교섭, 노사 단체의 대표성 부족, 노동자 이익대변 정당의 부재, 노사정 간 신뢰의 부족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 넓은 의미에서 ‘경쟁력 조합주의’로 분류되직한 유형의 사회협약의 정치를 꾸준히 시도해왔고 간헐적으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어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 학계에서 전통적 조합주의이론보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전략적 선택이론’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 특집에서는 9·15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시킨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집에 수록된 세 편의 글은 2015년 12월 8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

린 '주요 선진국가의 노동시장 개혁과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Lucio Baccaro 교수는 최근 국가부채 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유럽 대륙에서 국가, 기업조직,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 및 사회정책을 협상하고 개발하는 방식, 즉 '사회적 협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1990년대에 새로운 '사회조합주의'의 물결을 선도했던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를 검토한 그는 이들 나라에서 사회적 협의의 쇠퇴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이유를 정치적 교환을 위한 자원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Matthias Knuth 교수는 2000년대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성과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하르츠 개혁의 성과가 폄훼되어서도 안 되지만 독일 노동시장의 긍정적 성과는 하르츠 개혁보다는 인구변동과 같은 장기적 내부 추세와 외부환경 변화, 그리고 기존 제도의 점진적 폐지, 그리고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온 전통적 제도, 특히 기업의 내부 유연성을 담보해온 제도들의 장점들에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Maarten Keune 교수는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고용정책과 사회협약 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가 198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해 왔으며, 이것이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소개된 2013년 사회적 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비전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나 타협과는 거리가 먼 척박한 사회정치적 토양에서 우리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또 한 번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부채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의 정치가 퇴조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와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협의의 전통 위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두드러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리는 이미 1997~1998년 외환위기를 사회협약의 정치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중장기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현재 '노동시장 개혁'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노사정 모두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안을 풀어나가되 일자리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KLI**